

기독교학문연구(학)회 교육학분과의 역할

정희영 (총신대 교수, 동역회 이사)





현재 기독교학문연구(학)회의 분과는 경제학, 문화예술, 교육학, 법학, 철학, 역사, 상담심리, 사회복지, 의학, 그리고 융합 등 10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분과마다 그 전공에 따라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하여 학문을 연구함으로써 기독교학문의 발전에 큰 역할을 감당해 왔다. 기독교학문연구(학)회에서 일 년에 두 번 개최되는 춘계, 추계 학술대회를 통해 각 전공분야들이 기독교세계관에 의해 연구, 발표됨으로 기독교학문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또한 각 분과의 형편에 따라 모임을 갖고 그 모임에서 연구되어진 것을 세미나를 개최하여 자신들의 전공이 기독교적 세계관에 의해 어떻게 분석, 조명되어야 하며 그 학문이 나아가 할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연구한 것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각각의 학문이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연구, 발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왔다. 특히 신앙과 학문을 통합한 학술등재지 『신앙과 학문』이라는 논문집을 발간함으로써 기독교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여기서는 기독교학문학회의 성격과 그동안의 활동을 근거로 여러 분과 가운데 교육학분과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 기독교학문학회 교육학분과의 해야 할 일은 교육에 관련된 여러 전공분야를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하여 연구하고 발전시키며 적용하는 일을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계속하는 것이다. 모든 학문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학문 분야를 다 기독교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일은 기독교인 학자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며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교사를 키워내는 것이 주목적이 되는 교육학분야는 그 어느 분야에서 보다는 더 기독교 세계관에 의해 연구되어야 하며 그것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정기적인 연구모임을 갖고 교육관련 여러 분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가능하면, 연구모임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세미나를 통해 발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미나 개최를 통해 교육의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연구모임에서 연구한 것을 묶어 책으로 내는 일을 해야 한다. 연구모임에 모인 사람들 외에 기독교세계관에 의해 교육을 실천하거나 이론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교육학분과의 회원들이 번역한 에드린(Richard J. Edlin)의 『The cause of Christian education』이 『기독교교육의 기초』라는 책으로 번역, 출판되어 현재 4쇄의 출판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으며, 유익을 끼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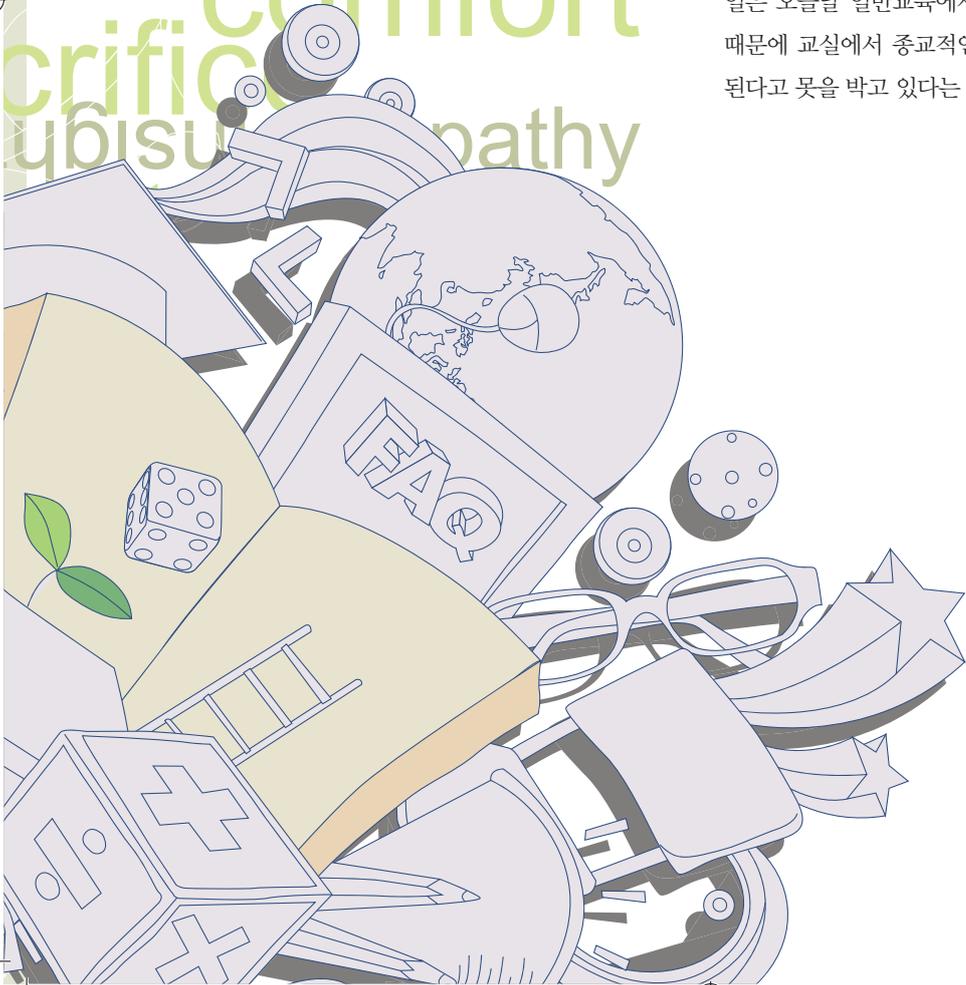
넷째,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교육관련 연구들의 동향을 분석하는 일이 필요하다.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하여 신앙과 학문을 통합한 연구물들의 대상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이 주로 연구되어졌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되었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기독교적 안목이 부족한 분야가 어디인지를 찾아내고 어떤 분야의 연구가 필요한지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연구해야 할 분야를 제시하고 연구해야 한다.



conv
environ
env
environment
sa
sym
disgust
rse
siege
compromise
titude
environment
convenience
ndidate
environment
comfort
crific
ubisu
pathy

2. 기독교학문학회 교육학분과의 또 다른 역할은 현재 우리 사회의 교육적 현실을 분석하고 기독교세계관으로 그 현실을 해석함으로써 기독교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는 일이다. 기독교인 학자들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서 우리나라의 교육적 현실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첫째는 우리의 사회가 안고 있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의 만연으로 인한 인성의 파괴와 이것의 결과로 여러 가지 범죄가 증가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 시대의 문제점이 연일 마스크를 통해 전해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부에서 인성교육의 강화를 주장하며 그 일환으로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학교에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인성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정확한 규명과 영성의 회복에서 비롯된다. 기독교교육만이 인간의 인성을 회복시켜줄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련된 일들이 교육학분과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학분과의 기독교인 학자들이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일은 오늘날 일반교육에서 교육이란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실에서 종교적인 가르침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기독교인 교사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교육을 하려는 교사들은 가슴이 답답할 수밖에 없다. 기독교교육을 포기해야 하는지, 만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기독교학문학회의 교육학분과에서는 기독교인 교사들이 교육이란 중립적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와 기독교교육을 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어떻게 하면 교실에서 기독교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한 예로 유아, 초등, 중등교육과정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을 통해 각 연령 별로 교육과정을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물을 출판함으로써 기독교인 교사들을 도울 수 있다. 또한 미디어가 “제 3의 부모”라고 하는 이 시대의 중, 고등학생들을 위해 기독교세계관에 관련된 교재를 만들어 출판함으로써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교사들에게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중, 고등학생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3. 교육에 관련된 여러 전공분야에서 기독교적 시각을 갖고 연구할 수 있는 후진을 양성하는 일은 기독교학문학회의 교육학분과에서 해야 할 또 다른 역할이다. 이를 위해 교육학분과에서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그 모임에서 기독교교육에 관련된 책이나 기독교세계관에 관련된 책들을 읽고 발표하는 형식으로 연구를 해왔으며, 때로는 이렇게 연구된 것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연구모임이 이루어질 때와 세미나 개최시에 대학원 학생들이나 후배들을 그 모임에 데려와 함께 연구하고 토론함으로써 다음세대를 이어갈 후진을 양성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관련 세미나 개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일 년에 두 번 이루어지는 학술대회의 대학원 세션에서 대학원생들이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고 청년논문상을 주어 격려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독교청년들이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하여 학문을 함으로 자신의 신앙과 학문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음세대를 키워나갔다. 처음 대학원 세션의 발표자가 5명 내외이던 것이 이제는 15명 내외로 그 수가 증가되었다. 이러한 발전이 계속되어 후진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되, 교육관련 논문이 연구, 발표될 수 있도록 교육학분과 회원들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희영 총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이자 총신대학교 부속유치원 원장이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이자 기독교유아교육학회 부회장, 동작구청 여성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으로 저서로는 "기독교유아교육론(교육과학사)", "기독교세계관으로 본 근현대 교육사조(그리심)" 외 다수가 있다.

